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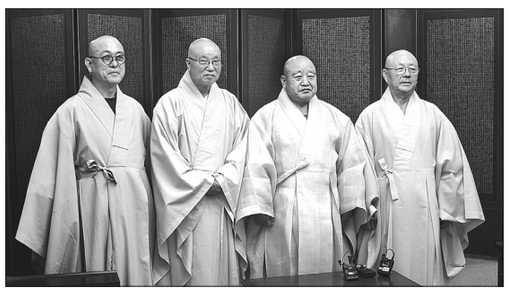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신임회장에 지현 스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새 회장에 서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선임됐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前회장 심산 스님 후임으로 지현 스님을 선임했다. 지현 스님은 이날 이사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출됐다.

이번 이사회서는 정관에 파라미타 회장을 조계사 관리인(주지)이 당연직으로 맡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회장 임기는 조계사 관리인 재직기간 동안으로 변경했다.

한편 회의에는 파라미타 총재인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이사 법경 · 덕조 · 오심 · 수미 · 가섭 · 효진 · 혜솔 스님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39 · 40대 동국대 이사장 환담

오는 7월 18일 이 · 취임을 앞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종단과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원행 스님은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현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과 차기 이사장 법산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종단과 동국대는 함께 가야 한다. 종단과 학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학교가 안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두 이사장 스님께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덕분이다.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이사장 이 · 취임식을 전현직이 함께 하는 것은 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학교 안정에는 종단과 총무원장 스님의 노력이 크다"고 밝혔다.

차기 이사장 법산 스님은 "학교 안정은 자광 스님의 공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종단과 협력과 학교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는 오는 7월 18일 오후 2시 교내 본관 중강당에서 제39 · 40대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참회를 바탕으로 수용자 신행변화"

Interview

김행규 신임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0년 넘게 교정포교해온 역군
1000일 기도로 무기수 감형도
조직 재정비해 네트워크 구성

"교정현장에서 수용자들이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포교를 펼치겠습니다. 연합회 조직을 다시 다지고 포교원과 중앙신도회, 공불련 등과도 적극 협력해 수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김행규 신임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30년 넘게 불교포교를 이어온 불자다. 직접 수용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상담하는 포교활동으로 올해 특별진급하며, 남부구치소에서 새로운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그가 6월 8일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제23회 수련회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김행규 회장은 1994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같은 해 서울구치소 불심회서 수계를 받고 신심을 바탕한 교정교화에 나섰다. 서울구치소 불교담당을 하며 수용자 상담, 불서 및 단주 보급 등을 통해 심성순화에 앞장섰다. 사형수들과 함께한 1000일 기도로 3명을 무기수로 감형받게 한 일화는 유명하다.

김 회장은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사무국장 등 연합회의 굳은 일도 도맡아왔다. 하지만 연합회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연합회는 서울경기강원, 충청, 영남부산, 호남제주 등 전국 4개 지부에 40개 지회를 거느린 조직이다. 창립 25년을 맞은 현재 초창기 3000여 명의 회원 수는 2000여 명으로 감소한 상태.

김 회장은 전국조직 안정화부터 나서겠다고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신심을 다시 고취시키고 중앙에서 지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포교원, 중앙신도회, 공불련 등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연합회 중점사업으로 △전국 지회 의견 청취 △조직 개편 △유관기관 및 언론 네트워크 구성 △정기법회 개설 등을 들었다. 특히 공불련과 같이 정기적인 법회 구성을 통해 회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김 회장은 "교정인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제하며 "수계법회를 비롯해 선지식 초청법회 등 참여가능한 분들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지금까지 많은 수용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들이 사회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데에는 불자 교정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포교의 마음이 곧 사회를 위하는 일이고, 자비와 참회의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고 이웃도 살피는 교정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무대 위에선 우리 모두 청춘"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연극제 성황리 폐막

연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끼를 발산하는 무대, 서울시니어연극제가 성황리에 폐막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7월 1~5일 복지관 4층 소극장 종로마루홀에서 '제3회 서울시니어연극제'를 개최했다. 시니어연극제는 사회참여 욕구가 높은 어르신들의 문화감수성을 충족시키고, 연극을 통해 노인문화 소외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노인주도의 연극문화축제다.

이번 연극제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대학老愛 연극단 △송파복지센터 극단 앙코르 △우리마포복지관 극단 오늘 △서울노인복지센터 극단 오색단비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한국시니어스타협회 △마스터프로덕션 △영주시노인복지관 청보리 연극단 △극단 좋은 사람들 △느티나무은빛극단이 참여했다. 각 연극단은



제3회 시니어연극제에서 공연 중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대학老愛 연극단.

고독사와 층간소음 등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간 사랑 등 다양한 주제로 공연을 선보였다. 5일간 공연장은 총 누적관객 20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연극제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대상의 영예는 '우리마포복지관 극단 오늘-우리 함께 살아요'에 돌아갔다.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과정을 비롯해 감정선을 세밀하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대학老愛', 우수상은 '영주시노인복지관 극단 청보리'가 수상했다. 또한 최우수연기상은 대학老愛 이규숙 어르신이 차지했다.

정관 스님은 "연극제가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 열릴 제4회 연극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앞으로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고 활동하는 모습을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힘겨운 병마에 도움 되길"

생명나눔실천본부, 7월 치료비 지원금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7월 11일 법인 사무실에서 환자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추성호 · 김남명 홍보위원이 참석해 SRC재활병원 오유나 사회복지사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이번 달 선정환자는 김수정(8 · 가명) 양이다. 뇌병변 1급 장애의 김 양은 현재 목 가누기 정도만 가능하며, 강직이 심해 어머니의 도움 없이 혼자 움직일 수 없다.

신성민 기자

정토사 가득 채운 하모니

체르니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정읍 정토사(주지 일묵)는 7월 7일 정토사 앞마당에서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을 초청해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사음악회에는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 지공 스님, 법성 스님 등 24교구 소속 스님들과 신도, 임민영 정읍 부시장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성 산불피해 700만원 지원

광주불교연합회, 이경일 군수 만나 전달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7월 5일 강원도 고성군을 방문해 이경일 군수에게 산불피해 복구기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보응 스님(세심정사 주지), 도성 스님(복암사 주지)이 참석했다. 도계 스님은 "산불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작지만 광주불교인들의 정성이 담긴 기금이니 잘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새로운 세상 100세 천세를 고통 없이 도인신선으로 사는 법. 생로병사의 근본, 육신 속에 구천의 쇠문을 열어 혜명과 성풍이 하나로 부처되어 귀신 잡신 병부사자 저승사자 제도하여 생사를 초월 영과 혼이 장수하는 타심통 천하제일의 육신통대법회

인생에 최대이슈 종교를 수행하는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종교 외 근본인 마음심(心)자로 모든 종교가 탄생되었으나 성직자들의 일그러진 법도로 탈색되어 호국불교윤리의 이념은 없어지고, 철퇴 맞아 한생을 보내는 것은 오직 마음에 부처는 천경, 만경, 염불, 독경, 참선, 명상, 점술 각종 수행으로 찾지 못하는 혜명은 오직 부모, 조상의 업연으로 신장이 귀신마장들과 저승사자, 명부사자들에게 시켜 잘못된 수행이기에 이 길을 벗어나는 자들에게 내육신 속 구천의 쇠문이 열리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허공의 진광 흰 눈이 내리는 기틀이 되는 대도가 성불이자 도통인 것이다. 오직 부처된 자만이 천신, 만신, 귀신, 잡신, 저승사자, 명부사자들을 제도 할 수 있는 주문만이 하늘천도 우주천도, 인간천도, 종교천도, 조상천도, 청춘몽달, 태중유산 수자영가제도하는 사자주문과 부처님사성제 주문만이 영과 혼을 천부팔역으로 보내 구천세계의 쇠북을 뚫어야 일류 스승 성직자, 성불 도통하여 만법을 통솔한다. 이제 칠칠 49제는 없어지고, 70일 10제만이 모든 조상들이 천도되는 것이며, 제십전륜성왕은 세존본심이고, 석가모니부처님만이 모든 영혼을 사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기해년 백중10제는 다시없는 기회이며, 인간의 모든 고뇌와 각종 질병은 모두 귀신의 장난으로 사업부도, 가정불화, 학업마장, 단명, 고질병은 해탈 못한 영가들과 특히 청춘영가, 육아모태유산 빙의신인 것이며, 오직 부처님 사성제 진법주문만이 저승사자 일체 영가마장을 다스린다. 하늘천도, 지구천도, 종교천도, 조상천도 자신이 천도되어야 남의 조상도 천도되는 것이다. 이 법은 비인도전이므로 눈과 귀가 있는 자 입문할 지여다. 나미아불타불

心

일체 고액 소멸하는 달마구입처 : 태일 010-9292-3110

•입제 : 2019년 7월 21일 일요일 •해제 : 7월 22일 해시 월요일 •준비물 : 필기도구, 무박 2일 •기도비 : 교제대 포함 10만원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곽한영(태일)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34 H.P 010-9292-3110 / 010-9781-4449

천기공사 불선도육신통천문도통회총본산 달마용천사 환성 합장